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 궤적과 삶의 만족도

백 옥 미
(군산대학교)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의 궤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1~3차년도(2006, 2008, 2010) 자료를 활용, 1~3차년도 조사당시 노동 지속 여부를 측정, 전 조사시점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그룹과 중단한 그룹, 새롭게 시작한 그룹,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룹 및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궤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년기 노동 참여의 궤적과 심리적 복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용어: 노동 시장 참여, 삶의 만족도,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 노년기

■ 투고일: 2014.10.31 ■ 수정일: 2014.12.26 ■ 게재확정일: 2014.12.30

I. 문제 제기

한국 노인에게 있어 노년기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국 노인에게도 노년기 노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최근 들어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 혹은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의존적이고 소비적 역할로 표상되던 전통적 노인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노년기를 생산적 활동의 시기로 권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는 취업,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활동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고령자의 건강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WHO, 2007). 더욱이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고 건강하며 활동적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노년층 진입이 시작되면서 노년기 생산적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0-64세 고령자의 취업률은 56.1%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0.7%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은 50대에 주 직업에서 은퇴하지만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인다(Lee & Smith, 2009).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 취업률이 10% 내외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Jang et al., 2009). 이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고 농업인구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노년기 경제활동 구조의 한국적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전혜정 · 김명용, 2014). 이처럼 한국의 높은 노인 노동시장 참여율은 생산적 노년의 견지에서 긍정적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비자발적 참여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노인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되어질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개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매우 중요한 복지의 지표이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또는 경험의 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도구가 생활만족도이다(김정옥 · 박지영, 2007). 선행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 사회적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이의 규명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처럼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 참여의 이유가 선진국의 사례와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는 엄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향이있다. 선행연구들은 생산적 노화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 등 주로 비경제적 활동의 효과에 집중해왔을 뿐 노년기 노동참여의 영향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일부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연구도 은퇴결정이나 비자발적 실업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노인 노동시장 참여의 심리적 복지 효과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된 상황이다(Hao, 2008).

더욱이 선행연구는 주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횡단자료를 이용, 회귀분석을 통해 판별해내는데 집중한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종단연구의 경우도 노년기 생활만족도 변화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박순미 외, 2009), 장기간 이루어진 종단자료를 분석해 노동참여 변화궤적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변화궤적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적 노화의 핵심인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사회적 요구 뿐만이 아니라 노인 개개인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 향후 노인 취업관련 정책 및 노인복지정책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노인의 건강과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대표적인 것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이다. 먼저, 활동이론은 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안녕이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한 이론이다(Lemon et al., 1972; Menec, 2003 재인용). 노년기의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이 복지와 관련된다는 학설이 제기된 지는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나(Havighurst &

Albrecht, 1953), 현재 널리 인용되고 있는 활동이론은 Rowe와 Kahn(1997)의 성공적 노화의 정의 내에 언급된 것으로서, 노년기 활동참여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육체적, 인지적 기능과 더불어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이때 활동참여란 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유급 혹은 무급의 '생산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활동과 심리적 복지, 특히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회 활동 중에서도 참여의 빈도와 친밀감의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다(Menec, 2003).

반면에 지속이론은 전 생애를 통한 성장발달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인의 인성적 특징에 의한 노년기 대처 및 적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활동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활발한 사회활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중년기에 수행했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비슷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활동임을 강조한다(Hooyman & Kiyak, 1999). 따라서 노인의 일과 사회참여는 단순한 경제적 필요를 떠나 노인부양의 한계상황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되어있고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는 비교적 낮고 제반 사회활동 참가가 높은 양상을 보이는 선진 국가들에서 검증된 이론으로서 한국적 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고령자의 생계가 이들의 노동의 대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면밀히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령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2011년 고령자고용동향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체로 농림어업 종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52.9%)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취업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급 가족종사자가 19.5%, 일용근로자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저소득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자발적 선택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기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서구 노년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것처럼 그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일 것이라 추론

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노인취업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노인취업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즉, 노인취업관련 정책사업 참여실태 및 참여만족도 연구이거나 사업의 현황 및 정책 제언 연구 등이 그것이다(서양열, 2004; 임춘식, 2003).

노년기 취업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노년기 취업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연구들(Li et al., 2013; Christ et al., 2007; 권중돈·조주연, 2000)이 있는가 하면 노년기 취업이 삶의 질(이정화·한경혜, 2003) 혹은 우울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전혜정·김명용, 2014; Jang et al., 2009).

구체적으로 노인의 취업 혹은 경제활동참여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Aquino et al., 1996; 허성호 외, 2011), 한국의 경우 노년기 노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노년기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1990년대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함께 소개되기 시작한 삶의 만족도 개념은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즉,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Havighurst, 1977).

노년기 삶의 만족도 혹은 생활만족도 관련 선행 연구들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정 지역 혹은 특정 대상층 노인층을 선정, 인구사회학적, 가족관계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 여부를 규명하였다(강희숙·이진현, 2007; 권중돈·조주연, 2000; 김희주·주경희, 2008; 박광희·한혜경, 2002; 박민서·조규범, 2003; 서경현·김영숙, 2003; 이경옥, 2008; 정명숙, 2007; 허준수, 2004). 이들

연구들은 주로 횡단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요인 중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생활활동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정연 외, 2010; 허성호 · 김중대, 2011), 만성질환과 장애로 인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낮은 인식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이중섭, 2010; 윤현숙 · 허소영, 2007). 사회적 요인으로는 자원봉사활동(문재우 · 유연용, 2013; 한상미, 2011; 신수태 · 빈성오, 2011)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모임 등 사회활동 모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허성호 · 김중대, 2011).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이선미 · 김경신, 2002),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도 존재하는가 하면(허준수, 2004), 생활만족도와 성별은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서희숙 · 한영현, 2006). 연령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허준수, 2004)가 존재하는가 하면 연령과 생활만족도간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연구(김은경, 2002)도 있다. 경제적 수준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허준수, 2004; 서희숙 · 한영현, 2006).

한편 이처럼 노년기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한 연구들과 함께 최근 연구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 사회적 요인들에 집중한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강선경 · 박희경, 2008), 생활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김정엽 · 권복순, 2007), 사회적 지지(박현순 · 나동석, 2008), 우울 및 수면(서희숙 · 한영현, 2006), 종교(손용진, 2007), 여가활동 참여(이영숙 · 박경란, 2009), 사회적 유대(이호성, 2005), 외로움(정태연조은영, 2005)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적 특성, 즉 신체적 기능저하 및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상실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상실에서 오는 자존감 저하, 외로움, 소외에서 기인한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기되어온 제반 변수들의 영향 여부를 규명하는 차원에 머물렀거나 특정 심리사회적 변수들과 생활만족도와의 직접적 관련성의 규명을 시도한 경향이었으며 노년기 노동의 영향력에 집중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일 혹은 노동이라는 변수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생산적 노화의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여가활동 참여의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김미혜·정진경, 2003; 한상미, 2011; 김영범·이승훈, 2008; 나항진, 2005; 방승희, 2009)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자원봉사나 여가활동 등 비경제적 활동에 집중한 연구들일 뿐 경제활동 참여를 의미하는 노동시장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노동의 생활만족도에의 영향을 규명하면서 인과관계의 영향을 보다 엄밀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인 종단자료의 분석이 요구되어지나 종단연구를 통해 노년기 노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활용해 노년기 노동의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노인들에 있어 노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작업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노년기 소득보전의 방편이 아닌 노년기 복지에 함의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특히 향후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제 1차(2006)~3차(2010) 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1차년도인 2006년에 45세 이상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10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후 2년마다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3차년도에 응답을 유지한 사람 중 60세 이상 노인층 4,170명에 한정해 분석했다. 현재 법령에서는 범위 취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연령기준이나 정의가 각각 다른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로 정의하였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를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직 및 연금수급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측정

가.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는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배우자관계, 자녀관계 및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묻는 5개 문항에 의해 측정되어졌다. 각 문항은 0~100점까지 총 10개의 점수 구간으로 이루어져 0점-500점까지 분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졌다.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노동시장 참여는 “현재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일이란 직장에 다니시는 것 포함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로 1~3차년도에 측정되어졌다. 그 결과를 토대로 5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졌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 까지 3개 시점 모두에 일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무노동 지속)를 비롯, 3개 시점 모두에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노동 지속), 1차 시점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차, 혹은 3차 시점에서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노동→비노동), 반대로 1차 시점 당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가 2차, 혹은 3차 시점에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비노동→노동), 마지막으로 1차와 3차에 일을 하고 있었으나 2차에 하지 않는 경우(간헐적 노동)로 구분, 총 5개의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에는 노년기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소득, 사회활동 참여가 포함되어졌다. 연령과 성별은 1차 시점 당시 자료를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결혼상태는 연령대의 특수성을 감안, 1~3차년도에 결혼상태의 변화를 변수 변환해 지속적으로 결혼관계에 있는 그룹과 지속적으로 싱글상태에 있는 그룹, 결혼상태가 변화한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범주형 변수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건강상태의 측정은 만성질환숫자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1~3차년도 당시 응답한 만성질환 숫자를 전체 합산해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자료는 1차 시점 당시 각 만성질환 항목에 진단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고, 이후 2차 및 3차 시점에서는 지난 조사 시점 이후 새롭게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를 묻는 식으로 질문이 되어졌다. 따라서 합산된 숫자는 마지막 시점 당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숫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교육수준은 1차 당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등 4개의 범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가구총소득은 3차 조사 시점 당시 “작년 한해 동안의 가구 총소득을 만원단위로 기입하라”는 문항에 의해 측정하였다. 사회활동 변수는 3차 시점 당시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모임,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가를 측정, 모든 문항점수들을 합산해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분석방법

노년기 노동 참여 궤적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는 먼저 노동 참여 5개 그룹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자승 검증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5개 그룹의 3개 조사시점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노년기 노동 참여 궤적별 생활만족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3개 조사시점동안 측정한 노동 참여 여부를 통해 생활만족도 결과를 측정하는 종단연구로서 반복측정된 자료를 다루는 통계기법이 요구된다. GEE는 패널간 또는 전체 패널자료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데, 특히 GEE는

정규분포로부터 이탈하는 다변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 것으로, GLM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반복측정 시계열 자료를 다루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Zeger & Liang, 1986). 이것은 모수의 분포에 대한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서 설명변수와 반응변수 사이의 연결함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반응변수의 주변분포 및 관찰된 상관관계 구조를 통해 유사 우도함수에 근거한 점근적 추정량을 산출한다는 장점이 있어 이분형 반응변수가 반복측정되어 측정값들 간의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임희정 외, 2004). 통계 분석은 PASW 18.0 패키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1. 노동참여변화그룹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는 총 4,170명이었다. 조사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729명으로 65.4%를 보였고, 기간 내 모두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0명(15.8%) 이었다. 또한 1차 조사당시 일을 하고 있었으나 2차, 혹은 3차 시점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283명(6.8%), 반대로 일을 하지 않다가 일을 하게 된 경우가 356명(8.5%), 1차 혹은 3차 시점에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차 시점에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거나 2차 시점에만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42명(3.4%)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층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연령대 분포는 60세 부터 105세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약 70세이고 남성이 1770명으로 42.4%를 차지했다(표 1).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졸 이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67.5%), 고졸(14.2%), 중졸(12.3%), 대졸(6.0%) 순이었다. 조사기간인 1-3차 조사 시점 동안 결혼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66.4%), 지속 싱글상태인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고(28.8%) 조사기간내 결혼상태에서 사별 및 이혼, 별거 등으로 싱글 상태가 된 경우 및 반대의 경우 등 결혼상태가 변화된 경우가 4.8%였다. 연간 가구 총소득

은 평균 1699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성질환은 평균 1개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모임을 비롯 사회단체, 친목, 여가, 정당단체 등 참여하고 있는 모임의 개수는 평균 0.8개로 드러났다. 노동참여 변화 집단별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실시한 카이자승검증 및 분산분석 검증 결과, 노동 참여 변화집단들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 상태, 소득, 건강상태, 사회참여에 있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시점별 삶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1차 시점 당시 일을 하지 않다가 이후 일을 하게 된 집단이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노동참여 변화그룹별 일반적 특성

	총		무노동 지속		노동 지속		간헐적 노동		노동→비노동		비노동→노동		P값
	n	%	n	%	n	%	n	%	n	%	n	%	
	N = 4170		N = 2729 (65.4%)		N = 660 (15.8%)		N = 142 (3.4%)		N = 283 (6.8%)		N = 356 (8.5%)		
연령_1	60-105세												<.001
평균(SD)	70.28(7.3)		71.02(7.0)		66.15(5.0)		66.93(4.8)		66.86(5.2)		67.26(5.4)		
성별													<.001
남성	1773(42.5%)		890(21.3%)		452(10.8%)		71(1.7%)		176(4.2%)		184(4.4%)		
여성	2397(57.5%)		1839(44.1%)		208(5.0%)		71(1.7%)		107(2.6%)		172(4.1%)		
교육수준_1													<.001
초졸 이하	2815(67.5%)		1908(45.8%)		400(9.6%)		93(2.2%)		163(3.9%)		251(6.0%)		
중졸	512(12.3%)		318(7.6%)		101(2.4%)		15(0.4%)		44(1.1%)		34(0.8%)		
고졸	584(14.2%)		336(8.1%)		119(2.9%)		28(0.7%)		52(1.2%)		55(1.3%)		
대졸 이상	251(6.0%)		165(4.0%)		40(1.0%)		6(0.1%)		24(0.6%)		16(0.4%)		
결혼상태1_3													<.001
지속결혼	2766(66.4%)		1608(38.6%)		560(13.4%)		107(2.6%)		224(5.4%)		267(6.4%)		
지속싱글	1202(28.8%)		966(23.2%)		87(2.1%)		28(0.7%)		48(1.2%)		73(1.8%)		
결혼상태변화	200(4.8%)		153(3.7%)		13(0.3%)		7(0.2%)		11(0.3%)		16(0.4%)		
가구총소득_3	평균(표준편차)												<.001
	1699(1658)		1679(1739)		1943(1561)		1300(1136)		1719(1565)		1544(1362)		
만성질환1_3													<.001
평균(SD)	1.01(0.9)		1.12(0.99)		0.73(0.86)		0.95(0.94)		1.02(0.99)		0.77(0.85)		
사회참여_3													<.001
	0.81(0.73)		0.78(0.72)		0.93(0.77)		0.80(0.73)		0.78(0.76)		0.88(0.72)		
삶의만족도_1	306.9		298.8		330.4		297.1		314.1		308.2		<.001
삶의만족도_2	300.9		294.8		318.6		288.4		299.6		308.8		<.001
삶의만족도_3	294.7		286.7		317.4		289.7		284.9		306.7		<.001

2. 노동 참여변화 그룹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표 2>는 본 연구의 주목적인 노년기 노동참여 변화그룹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3개 시점 동안 노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에 비해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집단(B=9.72, p<.01)과 1차 시점에는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가 2차, 혹은 3차 시점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그룹(B=8.2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3개 시점 동안 노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헐적 참여그룹 및 1차 시점 당시 참여했다 2차 혹은 3차 시점부터 참여하지 않게 된 그룹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통제변수 중에는 연령(B=-0.71, p<.05), 만성질환수(B=-9.39, p<.001), 사회활동 참여(B=20.94, p<.001), 결혼상태(B=6.27, p<.05), 가구소득(B=0.01, p<.001)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이 적을수록, 사회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속적 결혼상태인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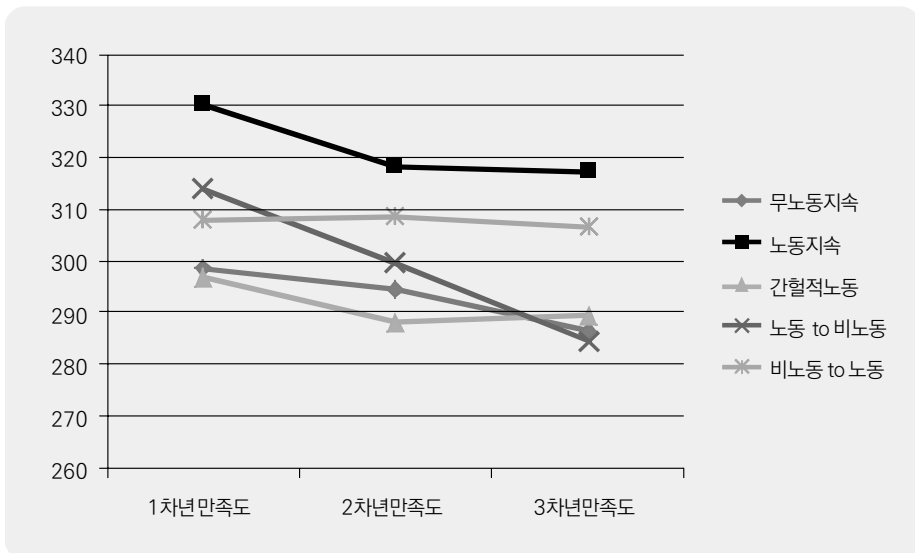
표 2. 노동참여 변화그룹별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N=4170)

변수	삶의 만족도	
	B	SE
독립변수		
무노동지속#		
지속적 노동	9.72**	3.07
간헐적 노동	-5.09	6.22
노동→비노동	-7.03	4.22
비노동→노동	8.23*	4.98
통제변수		
연령	-0.71*	0.19
성별	-0.71	0.76
학력_1차년도	2.47	1.56
가구총소득	0.01***	0.001
결혼상태1~3차년도		
지속싱글#		
지속결혼	6.27*	3.64
결혼상태변화	5.01	19.79
질환수1~3차년도	-9.39***	1.61
사회활동 참여	20.94***	1.60

= reference group, p* <.05, ** p <.01, *** p <.001

3개 조사 시점에 걸쳐 5개 노동참여 변화그룹별 삶의 만족도에 변화궤적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초기부터 낮았고 이는 점차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1차 시점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2차, 3차 시점이 되면서 다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다른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 1차 시점 당시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2차 혹은 3차 시점에 노동에 참여하게 된 그룹의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비교적 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노동에 참여하다 이후 시점에 노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 그룹의 경우 큰 폭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져 3차 시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간헐적으로 노동에 참여한 그룹의 경우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그림 1).

그림 1. 노동 참여 변화에 의한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V. 토의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 참여변화 그룹별로 삶의 만족도에 있어 그룹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노년기 노동 참여활동과 대표적 심리적 복지의 지표인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규모 패널자료인 한국고령화패널자료 1~3차 시점 5개년에 걸친 자료를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 변화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 노동에 참여한 그룹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3개 시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룹은 1차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후 삶의 만족도 수준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3개 시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3개 시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1차 시점 당시 노동에 참여하지 않다 이후 노동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그룹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았으며, 반대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게 된 그룹은 삶의 만족도 수준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3개 조사시점 동안 삶의 만족도 수준이 1차 시점에 비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패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본 연구는 노년층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만족도 수준이 하락한 이유는 노년기라는 생애주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악화, 배우자 상실, 사회 참여의 감소 등을 겪으며 심리적 복지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심리적 복지수준이 반비례하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허준수, 2004). 본 연구에서도 역시 연령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 수준의 하락과 관련이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둘째,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제반 인구사회학적, 건강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한 그룹과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

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그룹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이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구 중심의 선행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의 패러다임 하에 경제활동참여를 비롯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제반 활동 참여가 노년기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같은 노년기 활동 참여의 긍정적 영향은 다수 보고되었으나 경제활동 참여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으며, 일부 경제활동의 효과를 우울과의 관련성 면에서 검증한 연구들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하였었다(전혜정·김명용, 2014). 본 연구결과 한국 노인에 있어서도 노년기 노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에의 참여가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한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성공적 노화, 혹은 생산적 노화의 패러다임에서 제기된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효과가 한국 노년층에도 적용됨을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또한 다음과 같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한국 노인들의 경우 저학력에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한 집단이고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로부터의 봉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는 비자발적 생계유지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구에서 입증되어온 결과와 다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노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같은 한국적 상황 요인으로 인한 정반대의 결과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3개 시점 동안 노동시장 참여변화상을 토대로 노동참여변화를 5개 집단으로 분류, 삶의 만족도와와의 차이를 검증한 본 연구결과 노동시장에 참여한 집단들이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한국에서도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복지의 요소임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노인에게도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노년기 생계 유지 수단이라기 보다는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심리적 욕구의 반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케 해준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취업개선 프로그램이 개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들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장년 및 노인일자리정책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향후 보다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의

노인복지정책은 체계적으로 계획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전생애에 걸친 건강유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노화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Agren & Berensson, 2006). 특히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자율성 및 사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정책 차원에서 고령자의 욕구 및 기호를 고려한 직업연계 활동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고령자를 위한 취업정책부서가 신설되고 고령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연령 및 소득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사회활동 참여 등 요인들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이 적을수록,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상태의 경우 지속적으로 싱글인 집단에 비해 지속적으로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년기에도 배우자의 존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지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참여 귀적별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변인의 교차분석을 통해 3개 시점동안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그룹에서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양태를 보였다. 반대로 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그룹이 고졸이상 학력 수준을 보이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교차분석 결과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노동시장 참여의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노년기 지속적 노동 참여가 높은 수준의 학력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 는 학력 수준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유지의 중요 조건일 수 있는 점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룹에서 만성질환이 없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경제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 참여에 있어서 노동을 지속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가 전무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가 삶의 만족도라는 심리적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물론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참여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즉,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노인층은 건강상태도 비교적 좋지 않은 편이고 사회활동도 저조하며 이러한 약조건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가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낮은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지고 이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론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 결정 경로는 경로분석을 이용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장기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상태를 집중 조사,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이들을 위한 건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음을 실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나 이러한 관계가 노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도 아니며, 두 요인의 인과적 관계를 증명한 연구도 아니다. 따라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참여의 경로 및 효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참여의 변화궤적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규명하면서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다양한 기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차 자료 사용의 한계상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할 수 없었다. 특히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건강변수에 있어서도 만성질환 숫자를 측정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포괄적 의미에 부합한 기타 요소들이 제외되었다. 물론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만성질환 숫자를 대표적 건강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건강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 참여의 측정에 있어 2년마다 이루어진 3개 조사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범주화되면서 지나치게 그룹화가 단순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3개 시점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 범주화되어졌는데, 이는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고 노년층의 경우 특히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연중 간헐적으로 노동하는 경우도 많은 현실에서 이같은 범주화는 다소 단순화된 측면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속성, 즉 노동의 동기, 노동 조건, 취업의 형태 등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규명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실증적 규명이 미흡했던 노년기 노동참여의 효과를 종단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취업정책 및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백옥미는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년학, 정신보건, 노년기 노동이다.
(E-mail: omb@kunsan.ac.kr)

참고문헌

- 강선경, 박희경(2008).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pp.117-139.
- 강희숙, 이진현(2007).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보건과사회과학*, 21, pp.51-64.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pp.61-76.
- 김미혜, 정진경(2003). 노인자원봉사의 봉사활동 헌신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4, pp.221-243.
- 김영범, 이승훈(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노년학*, 28(1), pp.1-18.
-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pp.27-36.
-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2010).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2), pp.471-484.
- 김정엽, 권복순(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pp.111-130.
- 김정옥, 박지영(2007). 도예활동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p.95-109.
- 김희주, 주경희(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pp.125-158.
- 나향진(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pp.53-70.
- 문재우, 유연웅(2013). 자원봉사활동이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pp.87-107.
- 박광희, 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 pp.43-61.
- 박민서, 조규범(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3(1), pp.287-303.

- 박순미, 손지아, 배성우(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적 접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3), pp.1-24.
- 박현순, 나동석(2008). 취업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0, pp.147-172.
- 방승희(2009). 농촌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5(1), pp.57-80.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경현, 김영숙(2003).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pp.113-131.
- 서양렬(200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에 관한 연구: 전라도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4(1), pp.31-51.
- 서희숙, 한영현(2006).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및 수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연구*, 15, pp.159-170.
- 손용진(2007). 노인기의 종교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 *노인복지연구*, 36, pp.181-200.
- 신수태, 빈성오(2011). 대구지역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7(2), pp.23-51.
- 오미애(2013). 노인빈곤을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96, pp.25-35.
- 윤현숙, 허소영(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pp.649-666.
- 이경욱(2008). 서울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pp.125-158.
- 이영숙, 박경란(2009). 노인의 여가계약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pp.1-12.
- 이원덕, 장지연(2002).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화, 한경혜(2003). 일과 여가활동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2), 209-238.
- 이중섭(2010). 장애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7, pp.187-212.

- 이호성(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3), pp.123-138.
- 임춘식(2003). 고령화사회의 노인인력 활용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2, pp.55-77.
- 임희정, 김윤이, 정영복, 성상철, 안진환, 노권재 외 2인(2004).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진통제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자료의 GEE 분석. *대한예방의학회지*, 37(4), pp.381-389.
- 전혜정, 김명용(2014). 노년기 취업이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의 성차. *한국노년학*, 34(2), pp.315-331.
-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pp.249-274.
- 정태연, 조은영(2005).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탐색. *한국노년학*, 25(1), pp.55-71.
- 통계청(2013). 2013 고령자 통계. 통계청 웹사이트 참조. <http://kostat.go.kr/portal/korea/kor-nw/2/6/1/index.board?bmode=read&aSeq=308688>. 2014.10.9. 인출.
- 한상미(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pp.157-182.
- 허성호, 김종대, 정태연(2011). 취업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노년학*, 31(4), pp.1103-1118.
- 허준수(2004).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pp.127-151.
- Agren, G. BerenSSon, K. (2006). *Healthy ageing: A challenge for Eurpoe* Stockholm, Denmark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 Aquino, J., Russell, D., Cutrona, C., Altmaier, E. (1996). Employment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4), pp.480-489.
- Atchley, R. C. (1995). Activity theory. In G. L.Maddox et al. (Eds.), *The encyclopedia of aging: A comprehensive resource in gerontology andgeriatrics* (2nd ed. pp.9-12). NewYork: Springer.
- Christ, S. L., Lee, D. L., Fleming, L. E., LeBlane, W. G., Arheart, K. L.,

- Chung-Bridges, K. (2007). Employment and occupation effects on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mericans: Does working past age 65 protect against depression? *Journals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 pp.S399-S403.
- Hao, Y. (2008). Productive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3B(2), pp.S64-S72.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Tobin, S. S.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Hinterlong, J., Morrow-Howell, N., Rozario, P. (2007). Productive engagement and late lif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panel study. *Research on Aging*, 29, pp.348-370.
- Hooyma, A., Kiyak, A. (1999). *Social Gerontology: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Jang, S., Cho, S., Chang, J., Boo, K., Shin, H., Lee, H., Berkman, L. (2009).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s: Results from a baseline survey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4B(5), pp.677-683.
- Lee, J., Smith, J. (2009). *Work, retirement, and depression*, *Population Ageing*, 2, pp.57-71.
- Menec, V. (2003). The relation between everyday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 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8B(2), S74-S82.
- WHO (2007). *Global initiative for the elimination of avoidable blindness, action plan 2006-2011*, Copenhagen: WHO.
- Zeger, S. L., Liang, K. Y. (1986). Zeger, S. L., Liang, K. Y. (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for discrete and continuous outcomes*. *Biometrics*, 42, pp.121-130. Retrieved from <http://www.jstor.org/stable/2531248>. 2014.10.2. 인출.

The Associ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Employment Transition Trajectory in Korean Older Adults

Baik, Ok Mi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3 waves (2006, 2008, and 2010)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4,170 older adults aged 60-105.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employment transition groups through 3 waves into 5 categories: a continuous employment group, a continuous nonemployment group, a discrete employment group, an employment-to-nonemployment group, and a nonemployment-to-employment group.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ing was utilized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engaging in continuous employment status or in employment status later in 3 wav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rols compared to it of the nonemployment group.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employment engagement.

Key words: Employment in Older Adults, Employment Transition Trajectory,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Life Satisfaction